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
- 모 두 말 씀 -

2018. 11. 1.

금융위 부위원장
김 용 범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인사말씀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범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연대보증 폐지 현황 점검회의」에 참석해주신
중소기업 대표자, 주요 은행, 보증기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4월 2일 금융공공기관의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시행 이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연대보증 폐지 시행 이후의
성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그동안 현장에서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과제를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2 연대보증 폐지의 의의

연대보증은 “금융의 독버섯”이라 불리울 정도로
금융이용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연대보증이
창업의지를 옥죄고, 한 번의 실패만으로
기업인들에게 주홍글씨를 새기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정책금융기관인 신보·기보가
중소기업에 연대보증의 굴레를 덧씌운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먼저,
“금융의 연좌제”로 불렸던
제3자 연대보증을 2012년부터
공공기관 및 은행권에서 전면 폐지하였습니다.

개인기업은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금지하였고,
법인기업은 오너(owner)인 법인대표자 1인에게만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나아가, 창업실패시 대규모의 법인채무가
대표자 개인에게 미치는 결과가 가혹하다는 문제인식 하에
2014년부터 우수창업자 등에 대한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면제를 추진하였으며,

‘18.4월, 혁신 창업국가 실현을 위하여
업력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대표자에 대하여
금융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하였습니다.

연대보증 폐지는 건강한 혁신성장 금융생태계의 초석입니다.

연대보증이라는 족쇄가 없어야만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중소기업인들이
실패의 두려움 없이 보다 쉽게 창업하고,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삼아 재도전하여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도 연대보증 폐지를 계기로
용기있게 창업을 결심하신 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앞으로 나아갈 방향

보증기관 및 은행권의 자체 점검 결과,
현재까지 연대보증 폐지로 자금공급이 위축되거나
대출금리 인상 등의 부작용 없이

연대보증 폐지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보증 폐지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책보증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동안의 익숙한 보증·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심사·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1) 우선, '18.4월부터 전면 도입된
“책임경영심사”는
대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장치인 만큼

실질적인 사전 관리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심사지표를 지속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2) 또한, 보증지원과 함께 체결한
'책임경영 이행 약정'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경영 성과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올해 연대보증을 폐지하면서 도입한
“전용계좌”를 통해
기업의 자금사용 내역에 대한
데이터 수집이 용이해졌습니다.

보증기관과 은행권이 함께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증부대출 사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전·사후 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는
보증기관의 역할과 역량을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업그레이드시킬 것입니다.

기존에는 연대보증이라는 인적 담보를 통해
손쉽게 자금을 공급·관리하는 채권기관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대표자의 경영 책임성, 투명성을 관리하는 등
질적 관리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명실상부한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은행권에서도,
부동산 담보와 보증에 의존하지 않고,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심사하여
자금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고도화된 여신심사시스템 구축에
더욱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4 마무리 말씀

연대보증 폐지는 완결된 작업이 아니며,
앞으로 더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연대보증 폐지로 인해
보증기관의 부실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연대보증 폐지는
보증기관과 은행이
기업의 신용, 성장성, 무형자산 등을
정교하게 평가하여

담보나 보증없이
자금의 회수가능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해나가는 긴 여정을
여기 계신 분들이 성실하고 인내심있게
함께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기업 대표자를 비롯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